

작은 산골 마을에서 별을 만나다

하늘별마을 만행산천문체험관

춘향골 남원의 하늘별마을은 만행산 천황봉 자락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천문대가 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산골 마을 천문대인 만행산천문체험관이 그곳이다. 특별하다는 표현보다 '특이하다'가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2002년 대전시민천문대를 시작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천문대를 건설했거나 건설 중에 있다. 이들 천문대의 건설 주체는 시나 군 등, 큰 규모의 지자체였다. 이번에 찾은 만행산천문체험관은 기존의 어떤 천문대들과도 그 성격이 다르다. 천문체험관이 자리 잡은 하늘별마을은 주민이 60여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산골 마을이다. 천문대 건설을 기획하고 추진한 것도 이들 마을 주민이었고, 완공 후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마을 주민들이다.

만행산천문체험관은 지상 3층으로 전체적인 규모는 시·군 천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이다. 1층에는 세미나실과 체험망원경 보관실, 2층에는 조리 시설을 갖춘 방 3개가 갖춰져 있다. 3층에는 천문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주 돔이 자리하고 있는데, 지름 5m 규모의 원형 돔에는 구경 406mm 슈미트 카세그레인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함께 주 망원경에 버금가는 356mm 슈미트-카세그레인 망원경과 152mm 굴절 망원경이 관측에 사용되며, 다수의 중소형 망원경은 체험자들이 직접 다루어 볼 수 있는 실습용으로 제공된다.

만행산천문체험관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도 얘기한바와 같이 모든 운영을 마을 주민들이 한다는 것이다. 천문대가 건설되기 전에 이미 수 명의 주민들이 천문지도사 자격증을 받았고, 현재는 모두 10명의 천문지도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방문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도 이곳에서 재배한 재료들로 직접 준비한다. 체험관에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도 자체 제작하고, 청소부터 자잘한 관리까지도 주민들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민 모두가 천문체험관에 대한 주인의식이 남다르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프로그램은 당일과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나뉘며, 예약제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진행은 철저히 체험 위주이다. 천체망원경 다루기에서는 참가자 5명당 1명의 천문지도사가 배치된다. 운영 인원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천문대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참가자는 직접 망원경을 조립하고 관측 대상을 찾는 기쁨을 경험한다. 또 하나, 프로그램 중 특징적인 것은 동양 별자리와 우리 역사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체험관 곳곳에는 동양 별자리와 관련된 명칭들을 볼 수 있다. 천문체험관 건물은 자미원, 그 주변으로는 체험관을 지원하는 태미원과 천시원이 있다. 체험관 앞으로 흐르는 내에는 견우각과 직녀각이라는 누각을

짓고, 그 사이를 오작교로 연결할 계획이다(누각은 야외 실습장으로 활용된다). 반딧불을 볼 수 있는 무공해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생태 학습도 병행된다. 별을 매개로 자연과 역사를 어우르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관 7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천문체험관 운영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한다. 이곳을 찾은



▶ 천문체험관 운영 요원들. 모두 마을 주민들로 천문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만행산천문체험관의 가장 큰 자산이다.

이들의 반응도 좋단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우선 공간 문제이다. 많은 인원을 교육하기에는 장소가 좁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공간 확보를 준비 중이다. 또 하나 문제점은 운영 요원의 전문성 부족이다. 마을 주민들의 열의는 대단하지만, 천문을 접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이들에게 전공자 수준의 전문성을 바라기는 어렵다. 앞으로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요원 개개인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꾸준한 교육과 함께 경험이 쌓여야 할 것이다.



▶ 체험자들이 직접 조작하여 관측을 할 수 있는 실습용 망원경



▶ 조리 시설을 갖춘 2층 숙소



▶ 구경 406mm 슈미트-카세그레인 경위대식 주망원경

■ 천문대 일반 현황

2006년 12월 만행산천문체험관 준공

2007년 2월 만행산천문체험관 개관

전라북도 남원시 신통면 대상리 597-3

하늘별마을 만행산천문체험관

● 주요시설

▶ 관측시설

- 관측돔 : 지름 5m 원형 돔
- 주망원경 : 구경 406mm 슈미트-카세그레인 경위대식
- 보조망원경 : 356mm 슈미트-카세그레인, 152mm 굴절 망원경 외 다수
- 태양관측 : H-Alpha 필터, 흑점필터

▶ 기타시설

- 세미나실 : 천문 강의 및 실습 진행
- 숙소 : 조리 시설 및 욕실을 갖춘 방 3개(2층)

● 홈페이지 : <http://skystarville.or.kr>

전화 : 063-626-9009

● 2007년도 방문자 수 (단위 : 명) 자료제공 : 만행산천문체험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체험프로그램	79	52	70	136	90	180	168	206	-	-	-	-	981
일반관광	-	183	47	63	83	87	317	353	-	-	-	-	1,133
계	79	235	117	199	173	267	485	559	-	-	-	-	2,114



● 이용 안내

▶ 당일형 체험프로그램(15:00~21:00, 예약제 운영)

체험관시설 견학(천체사진전시실, 실습용관측돔구), 주타워양홍염 및 흑점관측, 야간천체관측, 천문관련동영상 상영,

동·서양별자리 여행 등

일정	교육프로그램	시간	담당자	비고
14:50-15:00	등록 및 입소		체험관종무	
15:00-15:50	기초천문학강의 - 하늘보는법	1h	천문지도사	
16:00-17:40	천체망원경다루기	2h	천문지도사	5인당 1천문 지도사 배치 진행
17:40-19:00	저녁식사		하늘별마을식당	
19:00-19:50	달, 행성, 성운, 성단 관측	1h	천문지도사	하늘이 허락하지 않을 시는 대체프로그램 운영

▶ 1박 2일 체험프로그램(15:00~다음 날 11:00, 예약제 운영)

※ 체험비용 : 1인당 40,000원 (숙비는 별도 1식당 5,000원)

※ 체험비용 : 1인당 20,000원 (숙비는 별도 1식당 5,000원)

▶ 1박 2일 체험프로그램(15:00~다음 날 11:00, 예약제 운영)

※ 체험비용 : 1인당 40,000원 (숙비는 별도 1식당 5,000원)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참조